

가을호

아트인cheon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Magazine



수봉공원

산이타기는 뭐한 뒷동산에서
회전목마를 타는 꿈을 꾸었네
엄마, 아빠 딱따고기 같은 높은 산이
커져버린 나에겐 동산이었네

놀이기구가 있는 풍경 속에서
나는 벅차는 맘을 숨길 곳 없네
엄마, 아빠가 찍은 사진들처럼
멈춰버린 기억인줄 알았는데

엄마야 같이 가자
꿈이타며는 깨지 말고

〈종락〉

기억을 돌아봐
기억을 돌아봐
...



상실을 노래하는 음악가 이 권 형





Cover Story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2016. 11. 18~20 대공연장

등록일 2008년 5월

발행인 손덕인

편집인 최구영

편집장 조우선

T. 032)420-2735 / E-mail. woos4242@korea.kr

편집·교열 유은미

취재·기획 정수산나, 오수지

디자인 기획 전재삼

디자인·인쇄 네오다큐

취재 홍유진, 장한성, 김본경, 강창대

사진 유창호

디자인 최재임

발행일 2016년 9월 1일

발행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15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http://art.incheon.go.kr>



06



14



22



24



32



10



18



26



36



20



30



44

Contents

Column & Interview

- 06 **People1** 한국 최초의 기타오케스트라 창시자_리여석
- 10 **공주영의 미술이야기** 사실주의 미술
- 14 **People2** 장한성의 한담(閑談)과 섬씽(something) II_이선영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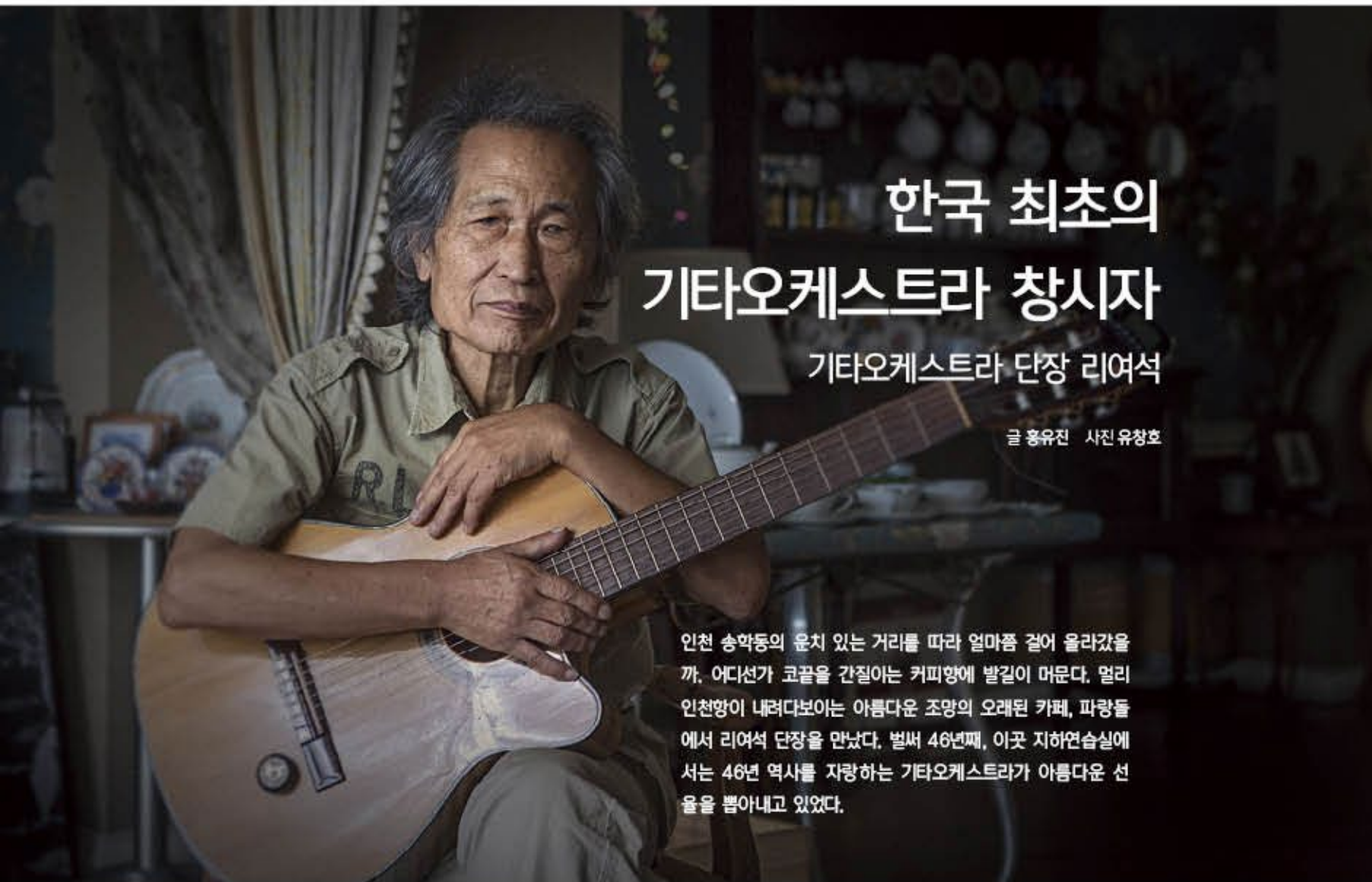
- 18 **Theatre** 스테이지149-음악극2 <봉장취>
- 20 **Theatre** 스테이지149 이자람의 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 22 **Classic** 클래식시리즈5 <황수미 & 양상불 마테우스>
- 24 **Musical**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26 **Theatre** 스테이지149-연극선집3 화류비련극 <홍도>

Review

- 28 **Cartoon-Review** '라이브, 얼라이브'
- 30 **Photo-Review** 시립무용단 <해변의 여인>
- 32 **Classic** '대가에 오른 자의 농밀한 단순함' _솔로모 민츠 & 윤동환

Information

- 36 **해외통신원** '독일 바이에른주 극장 페스티벌'
- 40 **Issue** 지역 언론과 지역의 문화·예술Ⅲ
- 44 **IMAG** (Incheon Metropolitan Arts Group)
시립합창단 악방의 감초 그남자 & 그여자_김종훈, 송지영
- 48 **News** 소공연장 리모델링 계획 외
- 51 **Performance** 9~11월 공연 소개
- 54 **Exhibition** 9~11월 전시 소개



한국 최초의 기타오케스트라 창시자

기타오케스트라 단장 리여석

글 홍유진 사진 유창호

인천 송악동의 윤치 있는 거리를 따라 얼마쯤 걸어 올라갔을
까. 어디선가 코끝을 간질이는 커피향에 발길이 머문다. 멀리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조망의 오래된 카페, 파랑들
에서 리여석 단장을 만났다. 벌써 46년째, 이곳 지하연습실에
서는 46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타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
율을 뽑아내고 있었다.



소녀들의 기타 합주가 오케스트라가 되기까지

기타의 매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것이다. 순간
적으로 감성에 젖어들게 하는 특유의 소리, 비교적 입문이 쉬워 누구든 기꺼
이 느낄 수 있는 연주의 즐거움, 언제 어디서나 기타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행복까지 선사해준다.

전축 외에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끼리가 마땅치 않았던 1960~70년대에는
오죽했을까. 리여석 단장의 회상에 의하면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동기
타 못 치면 간첩” 취급을 받을 정도였다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이어폰만 끼면 어디서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
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 커다란 전축을 이고지고 다닐 순 없
고, 기타 하나 딱 메고 가면 간단하잖아. 음악이 없으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청춘이지. 기타는 당시 젊은이들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보물 같은
거였어요.”

1942년생인 리여석 단장의 눈가에 아련한 그리움의 빛이 잠시 머물렀다. 그
가 처음부터 클래식 기타를 접한 것은 아니었다. 여느 젊은이들처럼 동기타
를 취미로 치던 평범한 국어교사에 불과했다고, 그가 본격적으로 클래식기
타와 연을 맺게 된 것은 1970년대 부평여중에 재직하던 중 합주단을 담당하
게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국어교사였던 내가 기타 합주단을 만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해체됐어요. 이어나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 그런데 어
느 날 우연히 연습실 앞을 지나가는데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소
리를 듣는데 갑자기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주단이 해체된 뒤에도 기타를 담당했던 몇몇 학생들이 몰래 학교에 남아
연주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악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기타의
매력. 리여석 단장은 기타만으로 이뤄진 합주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
이 현재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의 시작이었다.



한국 최초 기타오케스트라의 탄생

리여석 단장은 교장에게 찾아가 “기타 합주단을 만들 테니 지원해 달라”고 청했고, 다행히 그 청은 받아들여졌다. 학교의 지원으로 클래식 기타를 다수 장만할 수 있었다. 단원도 추가로 선발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이 서류심사 조건이었다. 연습에 매진해도 성적에 이상이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부평여중 기타합주단은 당시 인천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지금도 클래식기타만으로 이뤄진 합주단이 낯설게 다가오는데 그때는 오죽했을까. 게다가 반항적인 청춘의 상징이자 가장 대중적인 악기인 기타로 클래식을 연주하다니, 당시 사람들의 생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콩쿠르에 나갔는데, 심사위원이 ‘기타는 콩쿠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며 앞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안 해도 되니 무대에서 연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결국 연주순서가 다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결과를 집계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우리가 무대에

올라 연주를 했어요. 서류를 뒤적거리던 심사위원들이 눈이 커져서 우릴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지역 콩쿠르 사상 최초로, 기타로 입상하는 기적을 일궈낸 것. 부평여중 기타합주단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스물대여섯 명의 여중생들이 기타로 합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당시 KBS, MBC, 동양방송 등 유수의 방송국에서 부평여중을 섭외하기 시작한 것. 점점 더 큰 박수를 받았고, 덕분에 처음엔 자녀가 기타에 빠진 걸 못 마땅해하던 엄마들도 용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방과 후는 물론이고, 보충수업도 빠졌죠. 주말에 모이는 것도 당연했고요, 기타에 미쳐서 살았던 시절이었죠.”

부평여중 학생들은 졸업한 뒤에도 모여서 기타 합주를 맞춰보곤 했다. 리여석 단장은 이들의 열정과 실력을 제자리걸음만 건네 봐줄 수 없었다.

“우연히 일본에 있다는 니이보리 기타오케스트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분이 아니었다면 감히 기타만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오케스트라가 되려면 음역이 넓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처럼 현악기, 관악기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낮은 음부터 높은 음, 음색까지 제각각인 수많은 기타들을 모아놓으니 제법 소리가 좋더라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타 선율의 힘

리여석단장은 몇 번이나 일본으로 날아가 니이보리씨를 만나 다양한 클래식 기타에 대해 공부하고, 자비를 들여 기타를 공수해왔다. 지금의 기타오케스트라를 만들기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했으니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이 만든 음악단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들 그 비결을 물어요. 제가 하는 답은 늘 같습니다. 첫째, 미쳐야 한다. 둘째, 투자해야 한다. 셋째, 인생을 걸어야 한다.”

기타에 미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삶의 여정이었다. 교사를 그만둔 후 동인천과 석바위 근처에 ‘리여석음악학원’을 크게 내고 후학 양상에도 박차를 가했다. 당시 만났던 제자 박규희씨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되어 활약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커피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스승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악기도 처음으로 외국에서 들여오고, 악보도 내가 다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껏 내가 편곡한 음악만 480곡에 달합니다. 클래식에서 가곡,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기타가 연주해낼 수 있는 영역을 점점 넓혀갔죠.”

현재의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가 있기까지는 단장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던 셈이다. 평범한 중학교 국어교사가 클래식 기타의 달

인이 되고, 전문지휘자 못지않은 지휘 실력을 갖추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도 함께 했다.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달려왔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 클래식기타의 저변은 그리 넓어지지 않았죠.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오케스트라도 우리가 거의 유일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음악의 꽃을 피우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그저 씨를 뿌리자는 거죠. 나중에 뭐가 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씨를 뿌려놓자. 언젠가 또 나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 때는 내가 만들어놓은 자료를 활용하면서 꽃을 피울지도 모를 일이지요.”

기타는 클래식과 거리가 멀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대관조차 어려웠던 시절을 딛고, 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는 인천을 대표하는 음악단체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타의 선율이 주는 감동은 바래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행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악의 힘. 언젠가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며 리여석 단장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파랑돌 카페 지하연습장에 모여 선율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 **이은영**



사실주의 미술



▲ 밀러, *아삭 씹는 여인들*, 1957

진실만을 그리겠다

19세기 유럽 미술에서 사실주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사실주의는 바깥세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미술의 경향입니다. 이런 의지가 미술의 역사에서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외부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미술의 욕망은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의 동물 표현은 무척 실감납니다. 동물의 근육과 골격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 시대 조각도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설득력 있게 표현된 인체의 아름다움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원근법을 발명할 정도였지요. 질서정연한 자연의 경관과 자연스러운 인간의 미소를 캔버스에 담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신고전주의 미술은 또 어떤가요. 미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닮도록 보이는데 뜻을 두었던 미술들을 넓은 의미에서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주의는 좁게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전개된 미술운동을 가리킵니다. 쿠르베를 비롯해 몇몇 미술가들이 주도한 미술은 역시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



쿠르베, *안녕하세요, 쿠르베씨* 1854

려고 했지만 앞선 시대의 것들과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사실주의 미술이 태동할 즈음 유럽 사회는 변혁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유럽 사회 전반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요.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삶 모두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가 가속화 되

었습니다. 현실 세계가 급변하면서 허구적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에서 관심을 거두는 미술가들이 출현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사회 문제들이 겹으로 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자 한 사실주의 미술가들이었어요.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였던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는 신고전주의 미술가들처럼 붓으로 이상과 이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신고전주의자들이 시대착오적으로



쿠르베, *둘 께는 사람들* 1849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낭만주의 미술가들처럼 감성과 감정에 치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대의 사건을 그렸지만,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명확히 하지 않는 낭만주의자들을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동시대적이고 결단력 있는 미술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그리고자 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천사를 내 눈 앞에 먼저 대령하시오!” 천사를 그리달라는 주문에 이렇게 그는 발끈했습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쿠르베씨>처럼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 께는 사람들>처럼 거리를 지나다 마주친 적도 없었고요. 그에게 천사는 진실도, 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천사를 그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본 적 없는 것은 그리지 않겠다.” 한 평생 변함없이 그는 신념을 미술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그저 놀라운 기술로 눈에 보이는 외관을 똑같이 잘 그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냉철하게 포착한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제기한 그림이었지요.

불편한 질문들

과거 미술가들은 지배층의 관심사와 이념을 미술에 담아왔지요. 그런데 사실주의자들은 좀 달랐어요. 가지지 못한 쪽에 시선을 고정했지요. 이미 사회적으로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 보기를 시도했답니다.

사실주의 화가 도미에(Honoré Daumier, 1808 ~ 1879)의 관심은 도시 노동자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파리로 이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파리에 도착한 것은 산업혁명이 프랑스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이었습니니다. 이후 도시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동안 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들로 도시는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파리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계층이 있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들이었지요. 당시 프랑스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발간된 신문이 인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신문의 정기 구독이 시작되고, 주요 구독자들은 바로 중산층들이었지요. 언론이 이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겠군요.

도시의 중산층들은 새롭게 유입된 노동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흑여 이들이 자신들의 누리는 안락함과 안정감을 파괴할까 불안해했어요.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런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중산층들은 이런 인식을 사회적 이미지로 굳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을 신문이 거들었습니다. 언론이 표현한 도시 노동자들은 저분한 차림에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 일색이었습니다. 미술도 이에 동조하여 노동자들을 망설임 없이 끔찍한 존재로 묘사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도미에 역시 노동자를 즐겨 다루는 풍자화와 판화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미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현한 노동자의 모습은 당시 중산층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트랑스노병 거리 1834년 4월 15일>은 늦은 밤, 노동자들 주거지에서 있었던 무차별 학살을 다룬 그의 판화입니다. 그는 노동자 시위의 주범 찾았겠다는 빌미로 무고한 노동자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 현장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



도미에, <트랑스노병 거리 1834년 4월 15일> 1834

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에서 대책 없는 야만인이라고 언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억울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농민들의 세계

산업혁명은 농촌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산업혁명이 농촌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농부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대부분 손수 만들어 썼어요. 그런데 산업 혁명 이후 상황이 달라졌어요. 직접 캐낸 감자를 담아 먹을 접시조차 시장에서 사야 했거든요. 돈이 필요해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농부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추수 후에 갈기로 하고 돈을 골 수밖에요.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산업혁명이 농촌의 삶을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이런 악순환에 주목했지요.

그러기하면 어떤 이들은 산업혁명이 농촌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어요. 산업화가 진행될 무렵 농촌의 인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 탓이었어요. 반면 농업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인들의 주식이었던 감자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 비료가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어요. 급기야 이 시기 농업생산량이 인구증가율을 앞섰습니다. '이야말로 농업혁명이지!' 산업혁명이 농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여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에서 대책 없는 야만인이라고 언론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억울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림은 단순히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



밀레, <씨 뿌리는 사람> 1957

다. 당시 농부는 사회의 하층계급이었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처럼 농부들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런 농부가 이렇게 영웅처럼 표현되다니. 프랑스 지배층들은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들은 <씨 뿌리는 사람>을 보며 새로운 혁명을 이끌 불온한 선동자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화가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쿠르베, 도미에와 달리 그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미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주류 사회는 <씨 뿌리는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밀레는 7년 뒤 발표한 <이삭 줍는 여인들>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해 농사는 씨앗을 뿌리는 일에서 시작해 가을 건이로 끝이 납니다. 풍년이 들었군요. <이삭 줍는 여인들> 뒤로 거둬들인 곡식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풍성하게 수확했으니, 한 해의 노고를 뒤로 한 채 가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난 땅을 농촌의 아낙네들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거둔 곡식의 주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땅 주인이었지요. 산업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농촌의 빈부 격차도 커졌습니다. 당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농가가 농촌 인구의 3/4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가난의 정도가 결인의 수준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했지요.

이삭줍기는 추수가 끝난 다음 부유한 농민들이 가난한 농부들에게 베풀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일까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 ~ 1875)의 그림 속 당대 프랑스 농민들을 볼까요. 농사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농부가 가파른 땅을 성큼성큼 내걸으며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동작과 늠름한 자태의 <씨 뿌리는 사람>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

푸는 특별한 자비였습니다. 가을건이가 끝난 들녘에 이삭이 많이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빈농의 수가 많아 경쟁도 치열했지요. 안타깝게도 주운 이삭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된 시간도 정해져 있었지요. 심지어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말을 탄 감시자까지 대기 중입니다. 삼엄한 감시와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허기진 농민들은 이삭을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줍는 여인들> 어디에도 하나라도 더 주우려는 아등바등함은 없습니다. 대지를 향해 몸을 굽힌 여인들의 차분함이 노동의 숭고함마저 전달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당당해서 당시 지배층의 비판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삭 줍는 여인들>의 우아함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누더기를 걸치고 이삭이나 줍는 처지의 농촌 아낙네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에 불평불만이 쏟아진 것이었지요.

이런 비난 속에서 여러 점의 농민화를 남긴 밀레는 산업혁명이 농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그런 땅에 밭 딛고 선 사람들,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여겼을까요. 그는 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과 <이삭 줍는 여인들>을 보며 이 질문에 대한 화가의 답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도미**



글 공주형

미술평론가,
한신대학교 교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박사급 회화론으로 박사 학위 취득.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등단. 저서로 <사랑한다면 그림을 보여줘>, <색깔 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 등 현재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장한섬의 한담(閑談)과 섬씽(something) II

무덤으로부터의 퇴근

청년기획자 이선영

인터뷰 글 장한섬(플레이캠퍼스 대표)
사진 유창호

“바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고민할 기회를 허락당하고 싶었다. 주어진 서사에서 빠져나와 본인만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 ‘퇴근’의 목적이다. ‘고민할 기회’ 거기다 허락을 ‘당하고 싶었다’는 말 자체가 묘하다. ‘퇴근’의 기획자 이선영(1989生) 씨는 유년시절부터 인천 부평에서 살았다.

“무덤 옆 마곡초등학교가 인천의 이미지예요.”

차분한 말투에 미묘한 이미지가 엮인 대화 속에서 이선영 개인 너머 청년세대와 대면하는 느낌이었다.



프로젝트 ‘퇴근’ 첫 워크샵 장소이자 인터뷰 장소인 ‘공유공간 팩토리얼’



장한섬 “퇴근 후 ‘퇴근’이라는 프로젝트는 잔업 같네요?”

이선영 “생활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밥벌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근 이후의 고민이 직장인이 아닌 사회인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선영 기획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시시콜콜’에 지원했다 떨어진 ‘퇴근’의 구상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주위 친구들을 모았다. 장소는 공유공간 팩토리얼(인천 남구 용일자유시장에 위치한 문화공간).

장한섬 “공간이 마음에 들었나요?”

이선영 “아니요, 너무나 인천스러워서 싫었어요.”

장한섬 “그럼 왜?”

이선영 “함께하는 친구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 친구는 아파트단지에서 살아서 그런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선영씨는 인천시 부평구 마곡초등학교를 졸업 후 산곡여중을 거쳐

경기예고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입시학원 기억뿐이라 중학교를 다녔다기보다 거쳐 갔다. 대신 고등학교 시절은 꽤 즐거웠다. 비슷한 성향과 예술이라는 공감대 위에 지향성 같은 동반자들 때문이다. 하지만 예고생에게도 입시경쟁은 피할 수 없어 고3때는 화병이 났다. 성균관대로 진학 후 서양화를 계속 전공했지만 우울 중에 시달렸다. 감정조절이 되지 않았을 뿐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았다. 이때가 작가로서의 삶이냐 교육자로서의 삶이냐의 분기점이 된다. 졸업 후 결국 교사가 되고자 고려대학원으로 진학했고 열심히 했다. 하지만 떨어졌다. 임용고시 때 아는 문제도 틀린 자신에게 회의가 들었다. 안전한 길을 가고자 작가의 길을 포기한 자신에게 별을 준 기분이다. 결국, 교사의 길도 포기하고 이모가 있는 마산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4월에 올라와 공모사업으로 ‘퇴근’을 지원했다 떨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둠과 냉소, 거부와 전격의 기류가 느껴졌다. 첫 워크샵은 7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유공간 팩토리얼에서 있었다. 어떤 참여자들이 함께하는지 알고자 참관했다. 그리고 실망했다. 지루하고 미숙하고 자폐적이었다. 참가자들 개개인은 똑똑하고



재능 있어 보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덤 같았다. 무엇보다도 기획자가 말이 많고 참여자가 개입할 여백을 주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모두 발언은 배려와 존중을 담았지만 참여자들은 배려와 존중보다 탈산과 공감의 기회가 필요해 보였다.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기획자가 키잡이다.

이 때문에 인터뷰이의 섭의를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인터뷰를 결정 한 것은 기획서 때문이다. 그 동안 본 기획서 중 단연 압권이었다. 기획자의 고민이 있고 시대를 읽은 안목이 있었다. 문장도 마음에 들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래의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항상 칼퇴를 꿈꾸며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무뎠히도 노력했다. 퇴근 후가 우리의 진정한 하루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퇴근 후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이것 뿐일까?' 서로에게 질문했다.

과거 우리들은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참여자이자 해석자였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작품을 통해 순간순간 회열을 느끼며, 차분히 삶을 성찰하기도 하며, 잔잔한 보살핌을 받아왔다. 모든 창작물은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문화와 감정을 느끼기 위한 자발적인 소비행위는 자연스레 '사치'와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우리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굳혀진 '포기'를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변경해보고 싶었다.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트랙을 질주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한 번도 주체적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며, 나의 선택과 고민에서 왜 정작 본인은 제외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다. 바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고민할 기회를 허락당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여러 고민을 주체적인 기획자가 되어 결과물(창작물)을 만들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놓쳤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의 지향점과 태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기획자에게 필요한 성찰과 솔직함이 담겼다. 그러나 프로젝트 '퇴근'



의 첫 단추는 꼬였고, 인터뷰도 갈피를 못 잡았다. 오히려 지나친 성찰과 솔직함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기획자에게 아홉 개의 여우 꼬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우의 가면은 필요하다. 자신의 솔직함이 타자의 솔직하지 못함을 비추었을 때 당황스러움은 자기위선으로 비추어지고, 이것을 은폐하는 자기과시의 반동을 낳기도 한다. 기획자가 순수하지 못할 때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순수해도 문제다. 그렇다고 순수함을 감추거나 터덜터덜하는 말은 아니다. 관계 속에서는 순수함과 추진력보다 투박함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 이선영 기획자에게는 순수와 열정이 있지만, 이는 독재자에게도 있는 향기다. 워크숍을 보며 한때 포기했던 기획자의 과거 서사가 겹쳐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터뷰는 실패작이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나 또한 여백을 공유하지 못했고, 문장에 눈이 멀어 기획서를 확인하려 했지 기획자의 불안과 기획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미처 읽지 못했다. 여기에 곧대 시각이 달라붙어 20대 한계론이 작동했다. 굳이 이번 인터뷰의 성과를 조작해 내자면, 인터뷰 기획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젊은 기획자의 발굴과 조명이라 할 수 있다(이로 인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를 젊은 것들이 기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선영 기획자의 포기가 체념의 포즈가 아닌 새로움을 위한 결단으로 해석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포기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만은 미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주류에 편입되고자 자기를 포기하는 게 더 위험하다.

인터뷰 전과 후 영화 [곡성]과 [부산행]을 봤다. [곡성]에서는 목격자 무명(처녀)의 진실함이 공권력(경찰 중구)에게 외면당한다. [부산행]에서는 마지막 승객(감염자)인 젊은 여인이 또래의 여승무원을 좀비로 만들어 기차를 지옥으로 만든다. 여기서 혼돈을 겪는 것은 아버지 세대(아들 세대로 나오는 야구선수는 좀비가 된 여자친구 곁에서 좀

비가 되고, 할머니 자매로 나온 여동생도 언니와 함께 좀비가 된다). 현재 청년세대의 생존전략은 무덤 같은 현실에서 좀비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좀비처럼 행세하며 현실 같은 무덤을 발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버정신(존나게 버티는 정신)으로 산다. 헬조선에서 탈조선으로 접어들었고, 더욱 어두운 시대가 될 거라 예측된다. 그렇다고 설 불리 희망을 발하고 싶지 않다. 또, 권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68혁명과 히피문화가 기성세대를 거부하고 비판하던 시기에 나온 영화 [혹성탈출]의 주인공(찰론 헤스톤)의 대사를 전하고 싶다. "서른 넘는 사람 말은 믿지 마." **이선영**



스태이지149 - 음악극2

재기발랄한 새들의 세상 음악극 '봉장취'



공연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 8일(토) 목·금 오전 10시 30분 / 토 오전 11시, 오후 3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연령 : 6세 이상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2015년 제24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연출상, 연기상, 관객들이 선정한 인기작품상을 수상작

내 눈 앞에 다양한 새들이 나타났다!

어릴 적 우연히 제비아저씨에게 사하라 사막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게 된 '빠꾸기'에게 꿈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사하라 사막에 가겠다는 것! 과연, 빠꾸기는 자신의 아기새를 맡기고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평소 걸어 다니던 날적부리황새 '슈빌'은 새라고 하기엔 키가 115센치에 달하는 너무 큰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날지 못하는 슈빌은 다른 새들처럼 날기 위해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새 슈빌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진 옛 이야기, 신나는 국악으로 풀어내!

회관 기획시리즈 '스태이지149'의 음악극 두 번째 작품인 <봉장취>. 이 작품은 빠꾸기와 날적부리 황새의 삶을 투영해 아이들에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은 음악극이다. 음악극 <봉장취>는 봉황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음악만 전해지고 있는 전통음악 '봉장취'를 토대로 새로운 새 이야기를 창작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복원한 공연이다. 사라진 이야기 대신 '빠꾸기'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날적부리황새 '슈빌'이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린이에게는 상상의 시간을, 어른들에게는 삶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선물한다.

상상과 변형의 인형극, 역할놀이가 살아있는 공연!

가야금과 해금 등 국악악기 연주와 노래가 함께하는 음악극으로 악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물건들은 배우들의 손짓과 몸짓에 따라 빠꾸기, 황새, 제비, 백로 등 다양한 캐릭터로 변한다. 요상한 악기가 만들어 내는 바람소리, 감정 표현의 사운드도 아이들이 모든 감각에 집중시키는데 한 몫 한다. 발에 낀 빨간 질레는 어느새 올빼미 아주머

니가 되어 아이들의 배꼽을 빠트리고 넓적한 쓰레반기와 청소도구들로 만들어진 황새 슈빌과 공작새는 그 특징 하나만으로도 진짜 황새와 공작이 그곳에 있는 듯하다. 과연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을까? <봉장취>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잃어버렸던 세계를 찾아준다. 아이들의 부모 세대라면 쏙쏙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유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신나고 익숙한 우리의 장단과 국악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귀를 맑게 한다.

전 세계로 초청되는 음악극 <봉장취>

음악극 <봉장취>는 국내 무대를 넘어 2015년 9월에는 유럽 덴마크 어린이 청소년극단 'Batida'의 초청을 받아 유럽 어린이들의 호평을 받으며 공연을 마쳤고, 2017년에는 러시아의 Novgorod kings festival에 초청되어 공연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전국을 돌며 어린이 관객의 반응을 보며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작품에 반영하며 3년 동안 발전시켜 왔다. 이제 곧 전 세계 어린이들은 전통 음악극의 신비로움과 '새'들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봉장취>에 빠져들 것이다. **아이들만!**

스테이지149

이자람의 판소리 '이방인의 노래'



공연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 15일(토)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5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사천가〉, 〈억척가〉의 기록적인 행보 이후, 소리꾼 이자람이 소개하는 세 번째 이야기

- ▶ 독일 희곡작가 브레히트와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시작한 이자람의 판소리, 이번엔 남미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소설과 만나다!
- ▶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르케스의 보석 같은 단편소설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 Bon Voyage, Mr. President!』.
- ▶ 남미와 유럽을 오가는 소설 속 인물들을 한국의 판소리로 그려낸다.
- ▶ 모두가 '이방인'인 이 세상에서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섬세하게 보여주는 따뜻한 판소리!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남미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소설이 판소리로 찾아온다. 독일 희곡작가 브레히트와의 성공적인 만남으로 시작한 이자람의 판소리, 이번엔 남미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소설과 만났다. 마르케스의 보석같은 단편소설 『대통령 각하, 즐거운 여행을! Bon Voyage, Mr. President!』을 원작으로 남미와 유럽을 오가는 소설 속 인물들을 한국의 판소리로 그려낸다. 그간의 〈사천가〉나 〈억척가〉가 일종의 영웅적 서사였다면, 이번 작품의 주인공들은 일상 속에서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작품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낸 따뜻한 판소리 한편이 관객들을 스위스 제네바 어느 작은 마을로 안내한다.

젊은 연출가 박지혜 그리고 이자람과 함께하는 2명의 고수

이번 마르케스 단편소설과 이자람의 만남은 주요섭 작품 〈추물/살인〉을 함께 작업했던 박지혜 연출의 "남미의 환상문화와 판소리가 어울리는 지점이 있을까?"라는 물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사적 구조가 아닌 감성과 공기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소설이기

에 박지혜의 섬세한 연출과 이자람의 조합은 탁월한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조명, 세트 그 어느 하나 과함이 없이 마련된 공간 위에서 소리꾼 이자람의 아름다운 상상력과 연기는 더 빛이 났다. 여기에 일반 전통판소리의 연희형태와 달리 소리꾼과 2명의 고수가 이자람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며 맛깔스러운 조화를 이뤄낸다.

시놉시스(Synopsis)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라사라와 오메로 부부는 병원 앰블런스 기사일이며 허드렛일로 근근이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두 자녀의 학비는커녕 매일 다가오는 끼니를 걱정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들 부부 앞에 어느 날 이들 고국의 전직 대통령이 나타난다. 라사라와 오메로 각자의 기억 속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기억되는 전직 대통령, 속을 알 수 없는 이 노인은 큰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먼 제네바를 찾아온 것. 평화로운 이들의 일상 속에 나타난 전직대통령으로 인해 난데없는 갈등과 오해를 겪는 두 부부, 점차 깊어지는 오해의 끝에서 '사람'으로서의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이웃이 만난

클래식시리즈 5

‘소프라노 황수미 & 앙상블 마테우스’

공연일시 : 2016년 10월 29일(토) 오후 7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PROGRAM

- 현 텔 :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 (sop. 황수미)
- 현 텔 : 오페라 <세르세> 중 '우아한 몸짓 하나로' (sop. 황수미)
- 라 모 : 오페라 <카스토르와 폴록스> 중 '술큰 준비' (sop. 황수미)
- 비 발 디 :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작품 511
- 텔 레 만 : 리코더와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TWV 52:e1 (플루트, 리코더 협연)
- 모 차 르 트 : 엑스탈테 유빌라테 (sop. 황수미)
- 하 이 든 : 교향곡 82번 "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음악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앙상블 마테우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과 에너지 넘치는 표현력 그리고 탁월한 연주력으로 명실 공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챔버 앙상블로 자리 잡은 앙상블 마테우스가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선다.

앙상블 마테우스는 지난 20년간 대담하고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클래식 음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앙상블이다. 1991년 장-크리스토프 스피노시가 설립한 '마테우스 4중주단'은 그의 혁신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앙상블 마테우스'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인 카운터테너 필립 자루스키가 버진(Virgin) 레이블에서 발매한 <허어로> 음반에 참여하여 '디아파종 도르(Diapason d'Or)' 등 다수의 음반상을 획득하며 최고의 챔버 앙상블 대열에 합류했으며, 체칠리아 바르톨리, 필립 자루스키, 나탈리 드세이, 마리-니콜 르미외, 상드린 피아우 등 최고 성악가와의 협연을 통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앙상블로 성장했다. 최근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에서 발매된 두 장의 음반으로 모든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클래시가 메가진에서 최고의 음반에 수여하는 쇼크(CHOC)상을 받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챔버 앙상블 마테우스와 우리 시대의 진정한 퀸 황수미의 만남

이번 공연은 2014년 국제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소프라노로 급부상한 황수미가 함께 한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가곡, 오라토리오에서도 많은 연주활동을 하였는데 2012년에는 금호 영 아티스트로 선발되어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하였으며 뮌헨 필하모니 가스 타악홀과 미국 워싱턴필립스 컬렉션에서 지난 해 10월 독창회를 가진 후 워싱턴 포스트에서 '서정적인 목소리의 소프라노'라는 호평을 받았다. 힘있으면서도 서정적인 목소리, 정확한 발성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단숨에 해외 성악 시장의 주목을 받은 황수미는 현재 독일 본 극장의 솔리스트이며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로크 음악과 고전 음악에서 특별한 강점을 발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와 탁월한 표현력으로 세계 성악 무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선보일 모차르트, 헨델의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들은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슈이펙트**

파격과 감동의 깊은 울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Notre Dame de Paris

공연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 20일(일)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7시 / 일 오후 2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VIP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예매문의 : 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창라이프 1566-6551, 인드파크 1544-1155



2016년은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한국 등에서 전 세계적인 노트르담 드 파리 열풍이 예견된다!

1482년, 파리를 뒤흔든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이야기는 파리의 음유시인 그렝구와르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서곡으로 시작한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프롤로 주교는 꿈추 증지기 콰지모도를 충직한 증으로 삼고 있다. 한편 성당 앞 광장에 모여 사는 집시들, 그 곳에 클로렐과 아름다운 여인 에스메랄다가 산다. 에스메랄다의 춤추는 모습을 우연히 본 후 프롤로 주교는 그녀를 향한 욕망에 휩싸이고, 근위대장 페뷔스는 약혼녀인 플뢰르 드 리스를 두고 에스메랄다와 사랑에 빠진다. 그 후 에스메랄다를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콰지모도, 집착의 프롤로, 욕망의 페뷔스, 한 여인에 대한 이들의 엇갈린 감정은 숙명적인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데...

*프로그래밍은 향후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뮤지컬로!

1998년 초연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을 사로잡고 아시아까지 진출한 프랑스 뮤지컬의 전설 '노트르담 드 파리'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빅토르 위고가 완성한 비극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안에 빅토르 위고가 지향하는 인도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함축된 작품이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중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세 남자를 통해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통해 전하려 했던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성공한다. 꿈추 증지기 콰지모도, 근위대장 페뷔스, 성직자 프롤로의 내면적 갈등은 사랑에 빠진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혼란스러웠던 당대 사회까지 자연스레 녹여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원작이 가진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감동을 월등히 뛰어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이적인 기록의 OST 판매량 1,200만장, 전 세계를 사로잡은 아름다운 음악!

'노트르담 드 파리'는 여타의 뮤지컬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 한 편의 시(詩)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가 돋보이는 '노트르담 드 파리'는 곡 위에 대사가 얹혀진 대표적인 성 스루(Sung through) 뮤지컬로, 작곡가 코치안테는 이 작품을 'People Opera'로 소개한다. '대중성을 지향하는 오페라'를 기초로 팝 음악적인 요소와 대사가 많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아 완성한 것이 바로 지금의 '노트르담 드 파리'의 아름다운 음악이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OST는 발매와 동시에 17주 동안 프랑스 내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000만장 이상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특히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콰지모도, 프롤로, 페뷔스)의 사랑을 그려낸 노래 'Belle(아름답다)'는 프랑스 차트에서 44주간 1위에 머무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리의 주요 대형 음반가게에는 '노트르담 드 파리'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민**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3

화류비연극 '홍도'



공연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 26일(토)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료 : 전석 2만원

예매문의 : 중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유료회원 032420-2000),

엔터켓 1588-2341, 인터파크 1544-1555



1936년 임선규의 동양극장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고선웅 연출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다.

▶ 오래전 잊힌 것으로 여겨졌던 순수와 의리의 가치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희귀한 시각적 경험이다.

-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

▶ 배우들의 표정 하나, 대사 한마디, 동작 하나에도 시선을 땔 수 없다. - MBN, 김진선 기자 -

▶ 참 알갭다. 눈물 맺혔는데 웃겨버리고 한바탕 웃어찾히려니 슬프게 만든다. - 경기일보, 류설아 기자 -

▶ 대중의 공감과 연극적 미학까지 갖췄다. 쉽고 단순하고 명쾌하며 구성지다. - 민중의소리, 김세운 기자 -

▶ 대중성과 예술성의 절묘한 줄타기, 화비극 넘나드는 절제된 연기 -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평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연출가 고선웅, 그가 새롭게 탄생시킨 화류비연극 <홍도> <칼로마베스>, <푸르른날에>, <변강쇠 점찍고 옹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등으로 현재 연극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 스타 연출가 고선웅.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연출력으로 새롭게 탄생한 화류비연극 <홍도>가 인천무대를 찾는다. 고선웅이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이 작품은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신파가 아니다. 과장된 감정연기가 특징인 신파극 특유의 화법 대신 고선웅식 맛깔나는 언어유희가 빛나는 작품이다. 한과 정이라는 과거의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전혀 진부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화류가(歌)들이 삽입되어 음악적으로도 격조있는 화류비연극이 완성되었다.

화려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홍도>.

2014년 초연된 화류비연극 <홍도>는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2014년 연극총결산에서 월간 『한국연극』이 선정한 '2014 올해의 공연베스트'로 선정되었고, '2014 동아연극상 여자연기상'을 수상하였다. '2015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6 예

술의전당 예술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과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다채로운 수상경력에 빛나는 <홍도>가 극공작소 마방진만의 정교함과 고선웅만의 연출력 그리고 예지원의 절절한 연기가 정적인 무대와 애절한 감성을 통해 살아있는 신파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시놉시스(Synopsis)

오빠의 화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기생이 되어 우림정에 들어간 홍도. 그녀는 그곳에서 명문가의 아들 광호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훗날까지 약속한다. 광호의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완고하게 반대하지만, 둘의 진심을 확인한 광호 父의 극적인 승낙으로 광호는 홍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끝내 못마땅하게 여긴 광호의 母와 동생 봉옥은 광호가 북경으로 유학을 간 틈을 타 음모를 꾸며 홍도를 집안에서 내쫓는다.

몇 개월 후, 북경에서 돌아온 광호는 모와 동생의 계획대로 홍도를 오해하는데... **사연이더!**

라이브, 얼라이브





‘대가에 오른 자의 농밀한 단순함’ 솔로모 민츠 & 윤동환

음악칼럼니스트 김승열 사진 유창호



솔로모 민츠를 10년 만에 인천에서 해후했다. 2006년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나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의 핀란드아울에서 민츠를 초대받았다. 당시 준양전을 소재로 서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알레작품 '자랑의 시험'(L'Epreuve d'Amour)의 자료조사차 헬싱키를 방문중이었던 나에게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연이었던 것이다. 명장 레이프 세게르스탐이 이끄는 헬싱키 필과 바르토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드라이하게 물들여간 민츠와의 초대면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끔때가 벗겨진 듯 담백하지만 강직하게 활을 놀리는 민츠에게서 그의 스승 아이작 스톤이 겹쳐지기도 했다.

1957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2살 되던 1959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민츠는 이후 일로나 페헤르와 아이작 스톤, 도로시 딜레이 같은 명교수들을 얻거꾸 사사한다. 나에게 민츠 하면 떠오르는 것은 1982년 그의 나이 25세 때 완성한 비발디 '사계' 음반(DG)이다. 주변 메타가 이끄는 이스라엘 필의 업호 아래 스승 아이작 스톤과 핀커스 주커만, 이차크 펠만과 함께한 '사계' 음반에서 민츠는 '가을'을 맡아 연주했다. 당시 25세의 민츠가 그어간 운궁은 다른 명인들에 비해 노련미는 부족하지만 끌어오르는 열기로 충만해 있다. 스톤-펠만-주커만-민츠-샤함으로 이어지는 유태계 커넥션의 적동자로 인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윽한 톤을 민츠는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민츠 하면 떠오르는 명반은 1983년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끄는 시카고 심포니와 협연한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1, 2번(DG)이다. 이 음반에서 민츠는 기존의 냉혈한 스타일의 프로코피예프 해석에서 물러나 소비에트 음악도 따뜻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 덕에 이 음반은 1984년 권위있는 에디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 민츠가 지난 6월 3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내한 공연을 가졌기에 나는 한길음에 인천으로 달려갔다. 바흐 콜레기움 서울과 함께한 이 날의 프로그램은 세 곡이었다. 포문을 연 곡은 대 바흐의 둘째아들인 카를 필립 엠마누엘 바흐, 일명 C.P.E. 바흐의 신포니아 5번 B단조, 소위 감정양식으로 불리는 C.P.E. 바흐의 빠름-느림-빠름의 전 3악장을 미끈하게 관통해간 연주에서 민츠는 흔히 볼 수 없는 지휘자로서의 면모를 선보였다. 바흐 콜레기움 서울의 소노리티는 가려진 듯 날카로운 매무새로 일관했다. 치밀한 직조력을 과시한 3악장이 특히 인상적이었고, 축축함을 머금은 듯 찰진 질감을 과시한 연주력이 돋보였다. 군데군데 일사불란한 절도의 표정과 미묘한 뉘앙스도 잘 살렸기에 연주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솔로모 민츠라는 진정한 비르투오소의 등장

그러나 이제부터가 솔로모 민츠의 진짜 모습이었다. 바흐 나이 30대 피텐시대의 소산인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에서 민츠는 윤동환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취리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우수점수로 졸업한 윤동환은 2009년과 2010년 스위스 시옹 페스티벌에서 민츠와 수업한 경험이 있었다. 민츠와 윤동환은 구면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거장과 제자의 연주력은 확연히 구별되는 감이 있었다. 가장 답게 민츠에게서 추출된 소노리티는 꼭꼭 짓누르는 웅성깊은 것이었다. 제2 바이올린을 담당한 윤동환의 보잉보다 응집되고 세련된 소노리티가 민츠에게서 흘러나왔다. 특히 중음의 밀도가 훌륭했으며 군더더기 없는 노련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장풍의 간결하고도 농밀한 울림이 민츠에게서 일관했음에 비해, 윤동환의 보잉은 다소 응집되지 못한 산만한 것이었다. 작품의 핵심을 향해 굴착하지 못하고 표면만을 훑는 2% 모자란 것이었다. 씨줄과 날실이 얹히고 설켜듯 두 바이올린이 엮여가는 3악장에서도 민츠는 들뜨지 않고 꼭꼭 눌러가는 진한 점묘의 운궁을 선사했다. 폐부를 찌르듯 정곡만을 찔러가는 민츠의 운궁을 윤동환 또한 끊임없는 담금질을 통해 습득하길 소망한다.





마지막 메인프로그램은 역시 비발디 '사계'였다. 특이한 것은 '봄'과 '여름'을 윤동환이 장식하고 '가을'과 '겨울'을 솔로모 민츠가 연주했다는 사실이다.

'봄'에서 윤동환이 선보인 운궁의 결정체는 모종의 윤기와 밀도가 떨어지는 감이 짙었다. 수명이 길지 않은 운궁처럼 느껴졌다. 지금보다 더욱 바이올린 통자체를 울리는 속 깊은 소리가 우리나라와 윤동환은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어진 '여름'의 드라마틱한 전 3악장에서 윤동환은 애잔히 감정이입된 보잉을 과시했지만 바이올린 예술의 웅혼한 격을 드러낸 수준높은 연주는 아니었다. 질주하는 매무새는 돋보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밀도가 따라오지 못했음은 애석했다.

다음은 솔로모 민츠의 차례

59세 민츠가 구현한 '가을' 1악장의 만들새는 순전히 힘을 뺀 간결한 보잉으로 뭉쳐진 것이었기에 악상의 핵심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었다. 2악장에서 챔발로의 쓸쓸한 독주를 병풍 삼아 민츠와 악단은 유니즌의

희미한 자국을 사심없이 새겨나갔다. 3악장의 풍성한 수확의 느낌을 민츠는 두터운 활긋기로 출발해 능란한 굴곡새김으로 이어나갔다. 간결함 속에 에센스만을 추려낸 명실상부 거장의 소산이었다. 34년 전의 상기한 '사계' 음반에서보다 웅숭깊은 맛이 깃들어 있었다.

이어진 '겨울'의 1악장에서 민츠와 악단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최초의 격렬한 고비를 가볍게 그어갔다. 다분히 의도적인 해석이었다. 따뜻한 난롯가를 묘사한 2악장에서도 민츠의 운궁은 호흡을 짧게 가져가며 일체의 군더더기를 배격했다. 고조되는 선율의 정수만을 품어낸 단순화될 대로 단순화된 연주였다. 마지막 3악장은 여유롭기에 유려한 민츠의 풍성한 활긋기로 시작됐다. 그러나 어느새 여유로움이 격렬함으로 뒤바뀐 트레몰로에서 민츠는 날카로운 협객의 고난도 보잉을 과시했다. 그야말로 카멜레온 닮은 민츠의 전천후 기질을 '사계'의 '겨울'은 시위하고 있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대가란 어렵고 복잡한 대상을 단순하고 밀도 짙게 풀어내는 능력의 소유자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모 민츠는 분명 바이올린의 대가였다. 1980년대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다수의 여러 명반들을 쏟아냈던 민츠의 진가는 2천 년대 들어 다소 희석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인천무대를 통해 민츠는 그 같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어느덧 대가의 반열에 오른 민츠와의 해후를 고대하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할 다음 거장의 무대를 또한 손꼽아 기다려 본다. **이성민**



클래식과 사랑에
빠지는 네 가지 방법

Falling in Love

2016 FALLING IN LOVE SEASON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클래식을 바라보다’ 제356회 정기연주회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클래식을 ^{처음} 맛보다’ 제2회 I사랑 태교음악회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클래식과 춤 추다’ 제357회 정기연주회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클래식에 귀 기울이다’ 제358회 정기연주회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coming soon

‘독일 바이에른주 극장 페스티벌’ (Bayerischen Theatertage)

글 이상선 (독일 통신원)



힘을 빼고 집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술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결국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며, 협력하여 최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주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예술적 자부심이 강한 바이에른주에서 30여 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꾸준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바이에른주 극장 페스티벌을 이 지면을 통해 소개 드리려 합니다.

바이에른주에 존재하는 모든 테아터가 함께하는 이 테아터 축제는 1983년 아우구스트 에버딩(August Everding) 과 에른스트 자일팅엔(Ernst Seiltigen)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연은 뉘른베르크(Nürnberg)에서 바이에른주에 있는 11개의 시립극장들이 참가하고, 각기 극장에서 한 작품 이상의 엄선된 대표작을 무대에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35개가 넘는 바이에른주의 시립극장과 소극장이 개최지를 선정하고 그 도시의 특색에 맞게 거대한 도시 축제의 형태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들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그들에게는 초대형식의 배리로 미래 클래식 무대의 잠정적 팬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기간 이곳에서는 바이에른 주에 있는 극장들이 무대와 테크닉 그리고 음악, 연극, 무용, 양상불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정보와 힘을 나누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까다로운 예술가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여러 매체의 도움을 받아 대중화에 성공한 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도시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초대된 극장들은 그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오늘날 독일 사회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2016년에는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가 소속된 레겐스부르크 극장에서 주관하여 “Wildes Bayern(자연 속의 바이에른)”이라는 모토로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테마를 결정한 극장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무대의 공연은 소중한 것을 나눠야 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잘못된 길도 보여주고 때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 트렌드에 집착한 무대를 만드는 이들에게 자연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2주간의 일정으로 총 50개의 작품이 레겐스부르크 중 소도시 지역 사회에 선물 같은 공연을 선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극장에서 가장 신경을 쓴 프로그램도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행사 중에 바이에른 국영 클래식 라디오에서는 전문가들의 해설이 있는 라이브 실황을 중계하여 생생한 축제 현장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로는 2주일 동안 페스티벌의 관객으로 찾아준 약14,000명의 투표표 통해 이 해의 최고의 작품에게 프라이스(PUBLIKUMSPREIS-BESTE INSZENIERUNG)를 선사하는 이벤트로 분위기를 절정을 이룹니다.

올해의 수상작은 ‘Allegro Brillante’, ‘Three Loves’, ‘Dis Tanz(UA)’, ‘The New 45’라는 4개의 옴니버스 형식의 발레 작품

이 이 날의 최고의 작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뮌헨 슈타트 테아터 소속의 주니어로 만들어진 바이언 슈타츠 발레Ⅱ. 주니어 컴퍼니(BAYERISCHES STAATSBALLET II - Junior Company, München)의 창작무대 였는데, ‘Allegro Brillante’, ‘Three Loves’ 두 작품에서는 차이코프스키(P. I. Tchaikowsky)와 라흐마니노프(P. Rachmaninov)의 아름다운 선율을 배경으로 우아한 고전무용을 선보였으며, ‘Dis Tanz(UA)’, ‘The New 45’에서는 재즈와 창작음악의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다이나믹하고 절도있는 움직임으로 춤의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였습니다. 100분여의 시간 동안 고전 발레에서 현대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춤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상식과 폐회 연주로 화려했던 바이에른 극장 페스티벌은 관객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거대한 막을 내립니다.

이 행사는 지금의 각종 국제 영화제와 매우 흡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극과 발레 그리고 오페라까지 무대에서 행해지는 예술 작품들의 아름다운 교류는 결국 그 지역을 특화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정미**

사진제공 : 독일 레겐스부르크 극장(Theater Regensburg)



인천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

300만시대 진입기념

인천시민 합창대축제

Incheon Chorus Festival 2016

2016

9.20TUE

9.22THU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LINEUP

이항이합창단
계남구원소년소녀
동구원소년소녀
미추홀로합창
부평구원소년소녀
빛의아이들
서구원소년소녀
스웨덴합창단
인더루드
연수문화합창단
인천예술고등학교
CTB기독교TV부평소년소녀

성인합창단
강화군합창
남동구합창(동시)
농림어머니
동구시민
미추홀로합창
부평구합창
부평시민
연수시민
엑스포여성
인천남구시민
인천시립의무부
인천지역합창지휘자
웨스트밸리
해오네가족
해오네가족

티켓 전석초대 공연문의 인천시립합창단 032)438-7773

지역 언론과 지역의 문화·예술III

문화·예술의 저널리즘의 몫은 예술계일까, 언론계일까?

글 강창대



“친숙하지 않은 예술을 이해하는 문제는 스포츠에 대한 비유로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알래스카 인디언 가면을 볼 때처럼, 아마도 크리켓(English cricket) 경기를 보며 아리송해 할 것이다. 알래스카 인디언들이 산귀신(mountain demons)에 대해 가졌을 정서를 잘 모른다는 것은 요크셔 팬들이 전통적인 경쟁 관계에 있던 랭커셔에 대해 가졌던 느낌을 미국인들이 모르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미국인이) 알래스카 인디언 가면이 왜 비대칭적이고 소용돌이치는 형태로 조각됐는지 모르는 것은 ‘no ball’이나 ‘wide’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보는 방식을 바꾸면 보이는 게 바뀐다

대개 미술 입문서로 미술사, 그것도 주로 서양미술사가 주로 읽힌다. 대표적인 저자로는 젠슨(H. W. Janson)이나 고프리치(Ernst Hans Josef Gombrich)가 있다. 위에 인용한 『Art in Context』의 저자 잭 홉스 교수는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의 미술사가 역사적 맥락에서 미술을 다뤘다면, 잭 홉스는 인지적 측면과 인간 등 다양한 맥락에서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굳이 잭 홉스의 글을 인용한 것은 미술을 설명하면서 이처럼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보자.*

“이 논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고도의 능력을 지녔다거나 원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르게 ‘보는 법’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환경과 과거의 경험은 사람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람의 ‘보는 방식’은 그들이 보는 것에 크게 작용한다. 또한, 각각의 집단은 서로 다른 예술 언어를 발전시켜왔고,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에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한다. 관습이나 문화적 맥락과 같은 예술 언어에 대한 지식은 독특한 예술작품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종종 우리가 접하는 미술 해설은 천편일률적이어서 틀에 박힌 인상을 준다. 국어사전은 입체파에 대해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본 뒤에 부분 부분의 모양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다시 구성하여 새로운 미”를 표현한 미술 유파라고 설명한다. 대개의 설명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입체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들의 그림을 제대로 감상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잭 홉스는 피카소를 설명하기에 앞서 만화 「피너츠」

* Jack A. Hobbs, 『Art in Contex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5. p.14.

(Peajuts)의 주인공 찰리브라운의 생김새가 실제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한다. 그런데, 기괴해 보일 수도 있는 아들 캐릭터는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재현의 의무에서 벗어나 나름의 조형미를 탐구하는 활동이 미술이라는 설명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문화부 기자로서의 자존감

이것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대개의 미술 해설서가 비평 또는 평론이라는 전문적 성격을 가진 담론의 언어를 차용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쉬운 말은 천하고 격이 없는 인상을 준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더구나 주례사식의 평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학적인 언어로 비비꼬아서 쓴 글이라야 고답준론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문화부 전문기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전문지와는 달리 이들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따라서 쉽고 간결한 문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계가 생산하는 전문지 성격의 저널 뿐만 아니라, 일반저널을 통해 문화예술 담론이 생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 전문지가 그곳 종사자들 간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인 담론을 생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통로가 된다면, 일반저널은 문화·예술계와 이를 소비하는 대중을 매개하는 가교로서 중요한 입지를 갖는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성과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자양분이 되는 만큼 지역 언론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일반 저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기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 문화부기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화부기자들의 취재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말을 받아쓰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기자 스스로 자신을 문외한 또는 비전문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재원이나 이슈를 취사선택하는 순간 기자의 관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말을 전하는 것 역시 해당 분야의 담론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일반 저널 특히, 지역 언론의 현실에서 문화부기자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위한 배경지식이나 전문성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자신의 견해와 관점 역시 담론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쓴 소리를 내뱉을 줄 알아야 한다. 왜, 예술가가 하는 모든 행위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잠결에 그런 것처럼 불성실한 작품이나 창작자로서의 게으름과 무능을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행태에 대해 정직하게 발언해야 한다. 미술사학자 유흥준의 『정직한 관객』(하고재, 1996.07)에 등장하는 중년의 신사처럼 “이따위가 무슨 예술이야, 죄다 사기지”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경계를 허무는 도전

한 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요소가 제각기 지닌 다른 속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어떤 분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끄는가 하면, 또 다른 분야는 묵중함으로 다른 속도를 제어하기도 한다. 정보통신을 위시한 기술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속도는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반면, 제도나 법의 속도는 느리며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다. 이렇게 다양한 속도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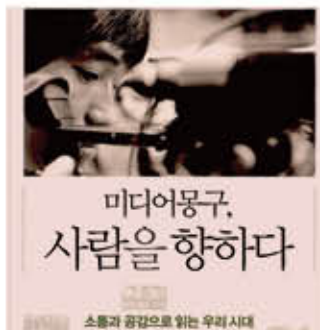
가 균형을 잃지 않고 진보해나가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는 자동차가 가속기나 제동장치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서로 다른 속도는 ‘마찰’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IT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세상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각종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며 놀라워했던 경험에 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속에 들어간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는 ‘미디어 아트’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과 예술 등이 융합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협업’(collaboration)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작 현장에는 기획자와 기술자, 예술가 등 전문화, 세분화된 업무 영역이 하나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 기획만 놓고 보자면 경영전문가나 마케터뿐만 아니라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참여해 서비스 사용자의 경험(UX: User eXperience)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된 경험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음향 전문가 등에 의해서 인터페이스로 완성돼 모바일 사용자와 대면한다.

이처럼 달라진 작업방식은 대학의 학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이미 1998년부터 ETC: The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해 다양한 전공분야 간의 협업과 융합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제 시선을 우리의 현실로 돌려보자. 미술을 단적인 예로 들자면,



여전히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등으로 전공을 분류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이 존재한다. 작가의 프로필 역시 이러한 분류에 따라 서양화가, 동양화가라는 식의 태그가 따라다닌다. 변화에 뒤쳐진 이런 식의 분류는 앞글에서 인용한 반이정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한국 미술계의 ‘동조성과 성역’이 낡은 병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기득권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돼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저널은 문화계의 영역일까, 언론계의 영역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관습적으로 지녀왔던 고정관념을 허물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에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 BJ**가 활동하고 있다.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일인미디어의 콘텐츠가 주류언론에 인용되기도 한다. 이미 팟캐스팅(podcasting)라는 서비스를 통해 ‘나꼼수’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기까지 했었다. 이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이는 곧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의미 역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 BJ는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되는 ‘Broadcasting Jockey’ 또는 ‘방송’의 두문자를 조합한 조어이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영어권에서는 같은 의미로 ‘streamer’를 사용한다.

인천시립합창단 악방의 감초 그 남자

센스 있는 개구쟁이 노래하는 그 남자, 김종훈

글 김본경 사진 유창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 '고부랑 할머니' 속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모습이다. 하지만 인천시립합창단이 공연하는 '고부랑 할머니' 속 할머니는 할머니 분장을 한 남성이다. 그것도 건장한 남성이다. 할머니는 노래는 기본, 춤과 함께 텀블링(tumbling)도 한다. 익살스러운 몸짓과 다양한 표정은 노래에 좀 더 세심한 감정을 실어주고, 흔히 알고 있는 '고부랑 할머니'를 또 다른 작품으로 감상하게 한다. 이는 인천시립합창단이 품은 매력이다.

허리가 굽은 고부랑 할머니를 에너지 넘치는 할머니로 연기한 주인공은 인천시립합창단 단원 김종훈(테너) 씨다. 천부적인 끼를 노래로만 표현하는 것에 늘 부족함을 느꼈던 그 남자, 김종훈 씨는 정적인 합창에서 퍼포먼스가 가미된 합창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공연 때마다 느끼고 있다.

"소수를 위한 음악은 시립합창단이 고집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통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곡마다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고 다양한 기획으로 전통은 지키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음악을 추



구해나가는 것이 시립합창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으로써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의 간극을 줄여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김종훈 씨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어른들을 모셔 놓고 빗자루를 기타삼아 송창식의 노래를 부르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취득, 개그맨 시험 도전,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즘은 남는 여가시간에 웃음치료사로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가 이루고 또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의 대상은 내가 아닌 행복해지는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남을 위한 웃음이 우선이었던 그는 상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것 같다.

"중혼 선배를 아빠로 둔 선배의 딸은 정말 행복할거예요." 라고 합창단 동료 송지영 씨의 말속에 그 남자, 김종훈 씨가 매우 유쾌하고 따뜻하며 정 많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2015년 8월부터 함께하게 된 김종현 예술 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길을 조심스럽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윤하원 전 예술 감독과의 호흡으로 합창은 전공자나 불려야 하고 지루하고 졸린 음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기획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의 고유의 색을 가지게 되었다. 김종현 현 예술 감독은 그 색을 존중한다. 또한团员들은 그러한 김종

현 감독을 믿고 존경한다.

"예전보다 퍼포먼스는 줄었지만 현재 우리 합창단은 감독님과团员들, 관객의 니즈를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을 하는데 있어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음악의 진정성도 중요합니다. 김종현 감독님은 음악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클래식적 열망을 깨워 주었고 그 깊이에 빠져 노래를 하다 보니 가사에서 느껴지는 감동보다 음악 속에서 깊은 울림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에 2000년에 입단한 그 남자, 김종훈 씨는 합창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마음으로 노래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깊이 있는 합창과, 그 음악을 대중과 함께 호흡해온 경험과, 타고난 끼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씨가 되어 아름다운 감동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은미**



인천시립합창단 악방의 감초 그 여자

아름다운 몸짓,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 여자, 송지영 ♀

“코믹 캐릭터 담당하는 게 너무 좋아요. 캐릭터를 나 자신 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얗고 작은 얼굴의 그 여자, 송지영(알토)씨. 조용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그녀는 성악보다 연극을 먼저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연극을 하고 앞으로는 연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재능을 주위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성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음악인의 길로 가고 있었다. 2005년에 입단한 인천시립합창단에서 만난 윤학원 예술 감독의 기획 속에 그 여자, 송지영은 톡톡 튀는 감초역할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얌전해 보이는 여자가 어설피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관객들이 좋아해 주세요. 이제는 함께 공연하는 단원들이 지루해하는 모습까지 신경 써서 때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연구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 그녀의 말과 행동은 일을 즐기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그것도 거침없이. 거침없는 그녀의 성향은 새로 함께하게 된 김종현 상임지휘자



와의 호흡에서도 발휘한다. “윤학원 감독님은 천재적인 기획력으로 저희를 이끄셨다면 김종현 상임 감독님은 단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세요. 마음을 전드리고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합창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고

옆 사람의 감정도 느껴지게 되고, 감독님의 지휘 품이 멋지거나 잘생긴 얼굴이 아냐네...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남자, 김종현 씨도 그 여자, 송지영 씨도 한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 우리 합창단의 분위기는 최고라고, 리더에 대한 믿음만큼 팀을 이끄는 데 중요한 것이 있을까. 모든 단원이 한 마음이 된 합창단의 달라진 모습이 무척 궁금해진다.

인천시립합창단이 시민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찾아가는 연주는 관객의 눈높이를 맞춘 기획으로 재밌고 깊이 있는 다양한 연주를 볼 수 있다. 연평도로 찾아가는 공연을 다녀온 송지영 씨는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 어르신들은 노래불러주러 왔다는 소식에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시립합창단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돈을 내지 않아도 바쁘게 굳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무대를 꾸미면 이분들이 신나게 재밌게 공연을 즐길 수 있을까. 함께 호흡하고 감정이 소동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합창단이 고민하고 연구해야하는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여자, 송지영 씨는 합창은 노래를 고급스럽게도, 재밌게도, 웅장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합창의 장점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입으로 내

는 소리가 한데 모아져 한소리로 엄청난 에너지를 내고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내는 멋진 작업이라고, 그 멋진 작업으로 만들어진 합창 속에서 변화되는 관객의 눈빛을 보는 것,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합창의 완전체가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언젠가는 저보다 뛰어난 후배가 들어와 더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꿈이 무엇이나는 형식적인 질문에 그녀는 공연을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 즐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한다. 늘 도전하고 또 주어진 역할에는 충실하길 바란다고.

그녀는 어릴 적 스티크 많고 주목 받는 걸 싫어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알게 되었다. 자신 속에 숨겨진 답대함을. 그녀는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적극적인 집중을 한다. 그리고 행복해한다. 합창단에서 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발견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 여자, 부드러운 카리스마 송지영의 어제보다 성장한 내일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영미



NEWS

시립합창단 마광휘 단무장 퇴임



▲ 마광휘 단무장 퇴임식

인천시립합창단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마광휘 단무장의 퇴임식이 지난 7월 4일 예술회관 귀빈실에서 열렸다.

예술회관 손덕인 관장의 감사패 증정으로 시작된 이날 퇴임식은 퇴임사, 시립합창단의 송가,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퇴임식에는 합창단 단원과 시립예술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마광휘 단무장은 퇴임사에서 “말은 바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동료 직원들과 시립합창단을 아끼고 사랑해 준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인천시립합창단과 예술회관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도부터 예술회관에 몸담은 마광휘 단무장은 16년 동안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뿐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 국제합창제 참여, 수차례의 세계 각국의 합창페스티벌 초청연주 등 인천시립합창단 발전에 힘써왔다.

소공연장 리모델링, 최신 다목적 문화예술시설로 업그레이드!



▲ 소공연장 리모델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 소공연장이 개선공사를 통해 최신 다목적 문화예술시설로 새 단장할 예정이다.

예술회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사업비 9억6천400만 원을 들여 소공연장 시설개선공사에 들어간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노후화된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와, 음향시스템, 음향반사판 교체를 통한 공연관람품질 향상 등이다. 또한 공연장 내 객석 경사도를 조절해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공연관람 편의도 증진시킬 방침이다.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완료되는 예상시점인 2월까지 소공연장은 휴관하게 된다.

예술회관 관계자는 “노후화된 예술회관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공연관람여건을,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편의를 높여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2월 개개관에 맞춰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날 계획도 갖고 있다.

1994년 문을 연 예술회관은 1,33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511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연습실과 분장실, 악사실 등을 갖춘 종합예술시설이다.

NEWS

예술회관, 새롭고 참신한 이름 지어주세요



▲ 예술회관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 새로운 이름을 찾기에 나섰다. 예술회관은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나아가 송도 ‘아트센터 인천’의 개관을 앞두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차별화와 가치향상과 향후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예술회관은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을 공모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공공문화시설 이미지에 걸맞은 새롭고 참신한 명칭으로 바꾸기로 했다. 8월에 접수된 안을 대상으로 후보안을 선정하며 1차 선정작을 대상으로 2차 공모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공식 명칭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하반기 기획 대형뮤지컬 티켓 R석 2매를 참가자 중 5명을 추첨해 예술단 공연 티켓 2매를 지급한다. 당선작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일체의 권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귀속된다.

예술회관, 9월부터 자유학기제 실시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하기 위해 토론과 견학, 공연관람 등 다양한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술회관은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확정짓고 참가 신청을 완료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체험활동을 9월부터 진행한다.

- 2016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

일시	프로그램	장소	유.무료
9월~10월 중	공연장, 연습실, 백스테이지 투어, 의상·소품실 견학 및 체험	각예술단 연습실	무료
9월28일(수)14시	스테이지 온 스크린 : 뮤지컬 제작과정 알아보기 <미스 사이공>	소공연장	무료
10월26일(수)14시	스테이지 온 스크린 :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소공연장	무료
11월30일(수)14시	스테이지 온 스크린 : 빅토르 위고 원작 뮤지컬 <레 미제라블>	소공연장	무료
9월3일(토) 19시	클래식시리즈 : 노부스 퍼트넷 with 손영음 <쇼스타코비치>	대공연장	유료
10월21일(금)14시	스테이지149 : 국립현대무용단의 베티 퍼포먼스 <춤이 말하다>	소공연장	유료



세상의 모든 밴드
BAND DAY 18

3.18
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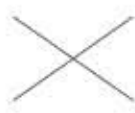
5.20
소환

9.23
라이프엔타임

11.18
파티엔 콰이어



순간이 이어지는
삶과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을 노래하는

라이프 앤 타임
2016 / 09 / 23 — PM 8:0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전석 2만원

※입장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9월 Performance
September

09 01 인천시립무용단 제31회 I-Dance 월대-환몽지무(幻夢之舞)
2016. 9. 1 / 오후 8시 / 전석 5천원(문화의날 할인 적용)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무용단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09 02 제6회 인천재즈앙상블 정기연주회
2016. 9. 2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10-6608-0004 / 인천재즈앙상블

09 03 노부스 콰르텟 with 손열음 <쇼스타코비치(SHOSTAKOVICH)>
2016. 9. 3 / 오후 7시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9 03 제1회 신명나개 <헤이아> 국악콘서트
2016. 9. 3 / 오후 5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10-8803-8754 / 전통음악의집 락궁

09 04 인하오케스트라 제36회 정기연주회 <해설과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2016. 9. 4 / 오후 5시 / 무료 / 대공연장 / 010-2738-1517 / 인하오케스트라

09 04 2016인음청소년교향악단 제37회 정기연주회 <가을 교향악의 밤>
2016. 9. 4 / 오후 5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88-0808 / 인음청소년교향악단

09 06 인천시립합창단 브런치콘서트Ⅲ <유지결!유지결!>
2016. 9. 6 / 오전 11시 / 1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합창단

09 07 2016년도 치매극복의날 기념 문화예술제
2016. 9. 7 / 오후 1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472-2027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9 09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상록작전 기념 특별 연주회
2016. 9. 9 / 오후 7시30분 / 전석초대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9 09 제14회 남동구문화예술회 무용정기공연
2016. 9. 9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422-0285 / 남동구문화예술회관

09 10 2016인천음악제
2016. 9. 10 ~ 11 / 오후 7시30분 / 1만원 / 대공연장 / 032-873-7772 / (사)인천음악회

09 10 제9회 효국악한마당
2016. 9. 10 / 오후 5시 / 초대 / 소공연장 / 010-6296-5067 / 무궁화전통종합예술단

09 11 3인3색의 가을향연
2016. 9. 11 / 오후 6시 / 전석 3만원 / 소공연장 / 010-5612-8684 / 박정호

09 13 청소년을 위한 제23회 청소년음악회
2016. 9. 13 / 오후 7시30분 / 1만원 / 소공연장 / 032-438-6040 / 인천청소년교향악단

09 20 300만 시대 진입기념 인천시민합창대축제
2016. 9. 20 ~ 22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438-7773 / 인천시립합창단

09 21 2016 커피콘서트IX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친구들
2016. 9. 21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9 2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6회 정기연주회 <롤링 인 러브 시즌 - 클래식을 바라보다>
2016. 9. 23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09 23 밴드데아18 라이프 앤 타임
2016. 9. 23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9 24 (사)우리소리보존회 인천지회 제4회 정기공연
2016. 9. 24 / 오후 6시 / 초대 / 소공연장 / 010-9099-7941 / (사)우리소리보존회 인천지회

09 25 2016 박인희 컴백콘서트 with 송창식 <그리운 사람끼리> - 인천
2016. 9. 25 / 오후 7시 /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아트

09 25 화인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2016. 9. 25 / 오후 5시 / 초대 / 소공연장 / 010-2378-2619 /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09 27 미추홀! 젊은 국악이 말한다
2016. 9. 27 / 오후 7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75-4644 / (사)한국국악협회

09 28 2016 stage on screen 베르디의 오페라 <오델로>
2016. 9. 28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420-273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9 30 유지결 <맘마미아>
2016. 9. 30 ~ 10. 2 / 30일 오후 7시30분. 1일 오후 2시, 7시, 2일 오후 2시 /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청라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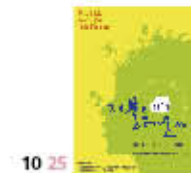
10 14



10 15



10 21



10 25



10 26



10 30

10월 Performance October

10 01 시민참여형의 기획콘서트

2016. 10. 1 ~ 2 / 오후 3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455-7100 / 인천문화재단

10 06 스테이지149 - 음악극2. <불장례>

2016. 10. 6 ~ 8 / 6일 오전 10시 30분, 7일 오전 10시 30분, 8일 오전 11시,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09 2016 노사연&신유 콘서트 <理想한 만남>

2016. 10. 9 / 오후 2시, 6시 / VIP석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 대공연장 / 1588-0776 / (주)더스테이지

10 11 인천YWCA합창단 제18회 정기연주회

2016. 10. 11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424-0524 / 인천YWCA

10 11 2016년 <아름 씬 콘서트>

2016. 10. 11 / 오후 2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440-1584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10 1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회 사랑 태고 음악회 <폴링 인 러브 시즌-클래식을 처음 맛보다>

2016. 10. 13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10 14 스테이지 149-이재림의 판소리 <이별인의 노래>

2016. 10. 14 ~ 15 / 14일 오후 7시30분, 15일 오후 5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16 제27회 이견음악회 -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라다글리치 초청공연

2016. 10. 15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760-0562 / (주)이건창호

10 16 제7회 인천 뮤직플라이 플룻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6. 10. 16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10-6204-6431 / 인천뮤직플라이 플룻 오케스트라

10 18 제20회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6. 10. 18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511-3141 /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

10 19 2016 커피콘서트X 클래식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여섯 줄의 달은 꿈>

2016. 10. 19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20 인천시립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2016. 10. 20 / 오후 7시30분 / 미정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합창단

10 21 스테이지149 - 핵트 퍼포먼스 <춤이 말한다>

2016. 10. 21 ~ 22 / 21일 오후 2시, 22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22 연극 <사랑별곡>-인천공연

2016. 10. 22 ~ 23 / 22일 오후 3시, 7시, 23일 오후 2시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주)더스테이지

10 23 2016년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2016. 10. 23 /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소공연장 / 032-833-2082 /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10 25 제22회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016. 10. 25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32-880-4297 / 인천남구청

10 25 2016년 제34회 제물포예술제

2016. 10. 25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868-7196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10 26 2016스테이지 온 스크린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2016. 10. 26 / 오후 7시30분 / 무료 / 소공연장 / 032-420-273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26 인천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2016. 10. 26 / 오후 7시30분 / 1만원 / 대공연장 / 010-5212-4013 / 인천가톨릭합창단

10 27 인천광역시 근로자 가요제

2016. 10. 27 / 오후 5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437-8501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10 2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7회 정기연주회 <폴링 인 러브 시즌-클래식과 춤추다>

2016. 10. 28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10 29 소프라노 황수미 & 앙상블 마테우스 내한공연

2016. 10. 29 / 오후 7시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0 29 인천시립무용단 제30회 I-Dance 격원무가전4

2016. 10. 29 / 미정 / 미정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무용단

10 29 제13회 마추출천사들과 함께하는 오페라 연주회

2016. 10. 30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765-0220 / 마추출요일단

10 30 청단 10주년 기념 빛과 소금합창단 가을 음악회

2016. 10. 30 / 오후 6시 / 2만원 / 소공연장 / 010-5310-5431 / 빛과소금합창단

11월 Performance November

11 01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TBN 인천교동방송 개국 15주년 축하공연

2016. 11. 1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53-1211 / 한국교동방송인천본부

11 03 제33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6. 11. 3 / 오후 7시30분 / 초대 / 대공연장 / 010-6268-1498 / 새얼문화재단

11 04 인천시립극단 제73회 정기공연

2016. 11. 4 ~ 13 /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032-438-7775 / 인천시립극단

11 05 블랙버스터 뮤지컬 <헬로카봇>

2016. 11. 5 ~ 6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대공연장 / 032-210-6622 / (주)더스테이지

11 09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

2016. 11. 9 / 오후 2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620-4212 / 인천가정법원

11 11 박정현 콘서트 - 인천

2016. 11. 11 ~ 12 / 11일 오후 7시30분, 12일 오후 7시 /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이프

11 16 2016커피콘서트X 월드뮤직그룹 세움 <KOREAN BREATH>

2016. 11. 16 / 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 18 밴드아이19, 피터팬 컴플렉스

2016. 11. 18 / 오후 8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 19 인천남구시민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2016. 11. 19 / 오후 7시30분 / 초대 / 소공연장 / 032-880-4640 / 인천남구시민합창단

11 20 인음주니어오케스트라 정기공연

<Junior Classic Concert>
2016. 11. 20 / 오후 5시 / 초대 / 소공연장 / 032-888-0808 / 인음주니어오케스트라

11 22 선광문화재단 송년음악회 <재즈올스타 스페셜콘서트> - 인천

2016. 11. 22 / 오후 7시 / 초대 / 대공연장 / 1566-6551 / 청라이프

11 24 인천시립합창단 고3수험생을 위한 연주회

2016. 11. 24 / 오전 11시 / 초대 / 대공연장 / 032-438-7773 / 인천시립합창단

11 25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8회 정기연주회 <폴링 인 러브 시즌-클래식에 귀 기울이다>

2016. 11. 25 / 오후 7시30분 / R석 1만원, S석 7천원 / 대공연장 / 1588-2341 / 인천시립교향악단

11 25 스테이지149 - 연극선집3. 화류비련극 <홍도>

2016. 11. 25 ~ 26 / 25일 오후 7시30분, 26일 오후 3시 / 전석 2만원 / 소공연장 / 1588-234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1 26 2016 <그라시아스 칸타타>

2016. 11. 26 ~ 27 / 26일 오후 3시, 27일 오후 3시, 7시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 대공연장 / 010-2201-0867 / 그라시아스합창단



11 01



11 06



11 11



11 18



11 25



11 30

9월 Exhibition September

09 02 제33회 인천수석인연합회회원전

2016. 9. 2 ~ 9. 8 / 대. 중앙. 소전사실 / 010-7340-0054 / 사)인천수석인총연합회

09 06 2016년도 차매극복의 날 기념 작품전시회

2016. 9. 6 ~ 9. 11 / 미추출전사실 / 032-440-1583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9 23 제52회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2016. 9. 23 ~ 10. 6 / 전사실전관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인천세계미술제



사우회



인천수석인연합회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아라회



수요사생회



청명회

10월 Exhibition October

10 07 2016 인천세계미술제

2016. 10. 7 ~ 10. 13 / 대전사실 / 010-8720-3098 / 사)인천미술협회

10 07 제3회 "시우(마침 맞게 오는 벼)" 정기전

2016. 10. 7 ~ 10. 13 / 중앙전사실 / 010-8005-7465 / 시우회

10 07 추억여행전

2016. 10. 7 ~ 10. 13 / 소전사실 / 010-9073-5301 / MEMORY

10 07 제7회 아라회 작품전

〈마음에 색을 칠하다〉
2016. 10. 7 ~ 10. 13 / 미추출전사실 / 010-6344-5064 / 아라회

10 14 귀 큰 어우 창작소 대형 프로젝트

- 작가와의 만남
2016. 10. 14 ~ 10. 20 / 대전사실 / 010-6211-2525 / 주)폭스아트이노베이션

10 14 제10회 청명전

2016. 10. 14 ~ 10. 20 / 중앙전사실 / 010-4417-8585 / 청명회

10 14 제19회 인천미협수요사생회전

2016. 10. 14 ~ 10. 20 / 소전사실 / 010-4214-8622 / 수요사생회

10 14 그림자전

2016. 10. 14 ~ 10. 20 / 미추출전사실 / 010-5720-8978 / 한국미술작가회

10 21 2016년 녹색성장을 인천인과 함께 하는 미술전

2016. 10. 21 ~ 10. 27 / 대전사실 / 010-4236-0971 / 인천여성연합회

10 21 중국 위해시 인천예총 교류전

2016. 10. 21 ~ 10. 27 / 중앙. 소전사실 / 032-873-5174 / 사)한국예총 인천시지회연합회

10 21 제10회 빛과 향기 회원전

2016. 10. 21 ~ 10. 27 / 미추출전사실 / 010-5392-2368 / 빛과 향기

10 28 제77회 인천광역시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2016. 10. 28 ~ 11. 3 / 대전사실 / 010-5316-1565 / 사)사진작가협회 인천시지회

10 28 제34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2016. 10. 28 ~ 11. 3 / 중앙. 소전사실 / 010-5316-1565 / 사)사진작가협회 인천시지회

10 28 제29회 인천사진연합전

2016. 10. 28 ~ 11. 3 / 미추출전사실 / 010-5316-1565 / 사)사진작가협회 인천시지회



한국미술작가회



제34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빛과 향기



아라회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29회 인천사진연합전

11월 Exhibition November

11 04 2016년도 iafoim 인천메세나국제아트페어

2016. 11. 4 ~ 11. 10 / 전사실 전관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11 11 산물여행 사진전

2016. 11. 11 ~ 11. 17 / 대전사실 / 010-9904-9595 / 사)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11 11 인화 회원전

2016. 11. 11 ~ 11. 17 / 중앙전사실 / 010-5287-4287 / 화. 류

11 11 인천공예인협회 회원전

2016. 11. 11 ~ 11. 17 / 소전사실 / 010-6767-9244 / 사)인천공예인협회

11 18 이야기로 그리는 설가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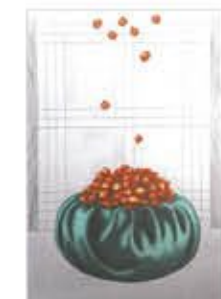
2016. 11. 18 ~ 11. 24 / 대. 중앙. 소전사실 / 032-867-2196 / 인천미술협회

11 25 제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전

2016. 11. 25 ~ 12. 1 / 대전사실 / 010-4333-8032 / 제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

11 25 2016 제7회 대한미국실버미술대전

2016. 11. 25 ~ 12. 1 / 중앙. 소전사실 / 010-5067-8154 / 남구미술협회



인천메세나국제아트페어



인천여성연합회



인천여성연합회



산물여행 사진전



인화 회원전



인화 회원전

Culture Leader

회원가입안내

Pause... '쉼'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Culture Leader 회원이 되세요.
살이 풍요로워 집니다.



Culture Friends 제휴점 이용시 할인 제공

계간 문예정보지 '아트인친' 무료 우송

월간 Program Guide(공연안내지) 무료 우송

기획 및 시립예술단 공연 10~40% 범위 내 할인 (일반회원 2매한 / 가족회원 4매한)

회원가입방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incheon.go.kr)에 접속 →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유료회원가입하기' 클릭 가입신청서 기재 후 '확인'
- 회원가입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선택하신 유료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2-745489(종합문화예술회관)
- 입금확인 연락처 : 032)420-2739 정기회원담당자

회원공연예매는 이렇게

- 매월 공연안내지 발송 시 '회원 안내문'에 회원 할인공연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회원 할인대상 공연에 대한 예매는 '회원 안내문'에 기재된 예매처로 예매하시면 편리합니다.
 - 회원 할인 전화예매는 공연 3일전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회원증을 제시하시면 예매하신 좌석권을 교부해 드립니다.
 -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획사로 연락바라며, 회원 예매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아래의 회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담당자 : 032) 420-2739

센트럴프라자호텔
호텔객실 50% 할인
(전 객실 주문, 주말, 부가세 포함)

센트럴프라자호텔 인천은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의 행정업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세계,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의 쇼핑몰과 문화예술회관, 문학경기장, 구월동 롯데오거리, 가천 길병원, 21세기 병원 등과 인접해 있어 비즈니스 고객 뿐만 아니라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도 다양한 문화와 휴양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15
Tel. 032)724-1000

Serendip Dining Cafe
다이닝카페 세렌디프
모든메뉴 10% 할인

다이닝카페 '세렌디프'는 송도신도시 캐널워크에 새롭게 문을 연 고품격 레스토랑이다. 감각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물론, 인천대학교의 야경과 캐널워크의 산책로는 고객님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준다. 특급 호텔 출신의 경영진과 셰프가 모여 만든 고급메뉴와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는 연인, 친목모임은 물론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 손색이 없다.

연수구 송도동17-1 캐널워크 401동(Winter) 205호
Tel. 032)261-0400

Petit Art Roasting Coffee & Dessert
로스터리 커피 하우스 뽀띠아르
모든메뉴 10% 할인

예술회관 바로 앞엔 로스터리카페 '뽀띠아르(petit art 작은 예술공간)'가 있다. 카페에선 후지로일(Fuji)의 생소한 불꽃으로 생두를 볶고, 핸드드립으로 원두의 풍미를 절묘하게 담아낸다. 세계 곳곳의 스페셜티 커피를 구해서, 고르고 볶고 내리는 주인의 손길은 마에스트로의 몸짓처럼 신중하고 단호하다. 음악과 연극 그리고 커피... 살이 되는 예술. 그 어디쯤에 뽀띠아르가 있다.

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93-1
Tel. 032)423-3787

포린커피
커피 및 음료 10% 할인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의 건너편에 위치한 포린커피 (Fall in coffee)는 주인장이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하여 커피를 내립니다. 산자별로 특별한 향의 핸드드립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원두도 판매하고있습니다. 여름에는 직접과일을 넣어 만드는 '진짜과일 스무디'와 국내산 팥으로 직접 췌어 만든 '술직한 팥빙수'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예술회관 주차장 입구 건너편, 남동구 문화로 61
Tel. 032)429-1107

Culture Friends

제휴점

공연정보가 제공되고
공연의 감동이 이어지는 공간
Culture Friends 제휴점에서
Culture Leader 회원증을 제시해 주시면
소정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태양스튜디오

태양스튜디오(since1977)

인물/가족사진 20% 할인



40년 전통의 정통 인물사진 스튜디오. 인천가톨릭대 문화예술교육원 사진영상과에서 16년간 강연하고 있는 유재형 사진가가 직접 촬영해 드리며 인물의 특성에 맞는 조명과 청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사진작업을 진행하여 모던한 인물사진을 만날 수 있다.
* 외부 촬영이 잦은 관계로 사전 예약 필수

남동구 문화로 61, 31 태양스튜디오
Tel. 032)433-502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약도 및 교통편 안내



■ 지하철 이용시

국철 1호선 부평역 또는 인천지하철2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지하철1호선 국제업무지구방면으로 환승하여 예술회관역 하차 6번 출구

■ 버스이용시

- 예술회관역 정류장
간선도로(파랑) : 21, 42, 700-1, 754, 903
- 문화예술회관 정류장 **지선버스(초록)** : 523-1, 534
- 신세계백화점(터미널) 정류장 (인천시청방면 도보 10분)
간선도로(파랑) : 3-2, 4, 5, 6, 6-1, 11, 21, 22, 27, 35, 36, 38, 42, 46, 82, 111-2, 700-1, 754, 780-2
지선버스(초록) : 31(순환), 514-1, 520, 523-1, 534
좌석버스 : 303, 800 **급행버스** : 903, 908
광역버스 : 1300
- 인천시청 정류장 **광역버스** : 1600, 1601, 9100
(터미널방면 도보 20분 혹은 인천시청역에서 지하철 이용시 1정거장)

■ 자가용 이용시

- 경인고속도로
도화IC → 도화초교사거리(주안역방면 우회전) → 주안역삼거리(문학경기장방면 우회전) → 구시민회관 사거리(석바위 방면 좌회전) → 시청역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예술회관역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 남동경찰서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좌회전) → 중앙공원 사거리(종합문화예술회관 방면 우회전) →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우회전)

■ 주차안내

- 주차요금
- 처음 30분 : 일반차량 600원 (경차 및 장애인 차량은 할인 적용 됩니다.)
- 정산소에 공연티켓 또는 관람확인증 제출 시 1,500원입니다.
- 관람확인증은 공연장 로비 휴대품보관소에서 배부합니다.
- 주차시설 이용문의처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032)579-2701~3
※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지 149

국립현대무용
한국문화재단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춤이 말하다



스튜디오의 안과 밖

「말하는 무용수」의
몸짓과 마주하다.

김영숙(한국전통무용), 예효송(현대무용), 김실진(현대무용), 임혜경(발레), 김지호(파쿠르)

2016.10.21-22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The World's NO.1 SHOW
뮤지컬 맘마미아!



BENNY ANDERSSON & BJÖRN ULVAEUS'
MAMMA MIA!™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2016.9.30(금)~10.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